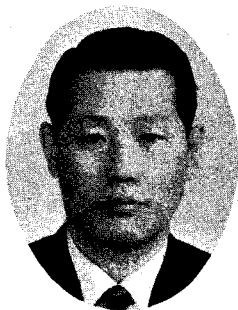


特輯：防疫機構

家畜防疫機構의 再整備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창 구
(이학박사, 가축위생연구소장)

수출증대와 국민소득의 증가는 폭발적인 육류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쇠고기,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돼지고기 마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여야 된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의 식생활에 큰 변화가 닥쳐온 것이다. 다행히 계란과 계육은 국내생산과 수요공급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천(變遷) 됨에 따라 가금질병의 발생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따라서,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1950년대만 하여도, 사육 규모가 백이나 천단위였던 시절의 가금방역(家禽防疫)이란, 뉴캐슬병, 계두, 추백리에 대항하는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마렉병을 선두로 여러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옛날과 비교하여 볼 때, 누구나 할것없이 격세(隔世)의 감을 뚜렷이 느끼게 하고 있다. 필자가 국내 최초로 가금질병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미국에 건너 갔을 때 느낀 소감은, 너무나 엄청난 큰 차이 때문에, 그때 받은 쇼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수많은 수의과대학(獸醫科大學)에는, 가금질병학과(家禽疾病學科)가 있어서 닭의 질병에 관한 깊고 넓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가금질병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구와 대민봉사(對民奉仕)를 입체적으로 전개하여, 양계업계 질병피해를 극소화 시키고 있었다. 그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였다. 우리의 가금질병연구 부서라 하면, 가축 위생연구소의 계역과(鷄

疫科)가 유일한 존재이고 그것도 1964년 많은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사람이 강압적으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부서(部署)가 설치된 후 15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으며, 그동안 많은 기술자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일선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또한 연구진은 그들 일선기술진과 제휴하여 가금질병 방제란 중책을 맡고 있다. 우리의 양계계가 오늘날, 이와 같이 발전 하였고 또 전재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가축위생연구소에 계역방제(鷄疫病除)를 위한 전담연구 부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선진국(先進國)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연구인력(研究人力)이나 시설은, 너무나 빈약한 까닭에 서로 비교조차 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이래 3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생각하면 별로 긴 시간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세계의 과학문명이 지난 50~60년 동안에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부 수립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다만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基盤)이 없었던 까닭에, 그런 작업을 다지느라고 금과 옥같은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하였던 것이다. 가축질병 방제를 위한 기반 사업의 하나는, 교육제도의 보완(補完)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대학에서는, 졸업생이 남아 돌아 고심을 하는 반면에, 가금질병을 전공한 대학졸업생은 단 한명도 없다하니, 제도라 할지 교육정책(教育政策)이라 할지, 대학교육에 대한 보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전문지식을 틈뚱 지닌, 고등기술자의 배출이 계속 되어야 한다. 가축방역 사업이 전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또하나의 큰 원인은, 각 시도에 소

속되어 있는 시도가축보건소(市道家畜保健所)의 빈약한 시설과 예산, 그리고 훈련원 기술자의 부족에 있다. 1953년 창설된 이래, 25유년 제각기 나름대로의 발전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각 담당지역내의 가축보건 사업을 관장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는 가축의 수와 병행하여 시설이 확대되고, 인원과 예산이 늘어야 할 것은 명확한 현실이지만, 경기도를 포함하여 6개도에 1개의 지소(支所)가 설치 되었을뿐, 그 이상의 발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방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축위생연구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시설과 기술 그리고, 인력이 부족

해서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시도가축보건소의 처지도 괴롭지만, 그들의 요청을 수시로 받아주기 위하여서는 가축위생연구소도 업무의 지연과, 인력의 부족을 감수(甘受)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격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것은 무질서한 지방의 인사 행정인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업이 사람과 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전문 기술자도 아닌 일반 행정적 인사를 마구 전보(轉補)시켜서 가축보건소장이나 그 소속 직위에 임명 하므로써 일어나는 폐단은, 가축방역을 일체 외면하는 처사로써 극히 삼가해 주어야 할 일이다. 가축방역 사업상 필수불가결한 사항의 하나는, 중앙연구기관과 시도 가축보건소 그리고, 일선지방의 양축가를 연결하는 기술지도 체제의 확립이다. 새로 개발된 기술이 빠른 시일안에 농촌에 침투되고, 일선 양축가의 문제점이 지체없이 관할가축보건소에 전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 사업을 담당

할 기구가 전혀 없으며, 현재는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수 의사(公獸醫師)나 일반 개업수의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지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절대적 의무가 없는 이들 일선 수의사들에 의존하여 모든 방역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축방역에 있어서 백신(豫防藥)의 비중은 매우 크다. 일부 관수용(官需用)을 제외하고 농촌에서 쓰여지는 대부분의 백신은, 현존 4개 제조업소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으나, 때때로 생산량과 각 백신의 질(質)이 문제될 때가 많다. 1961년부터 시작된 백신의 민영화는, 그동안 많은 골질을 겪어 왔다. 오늘날 백신 민영화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불실(不實)이란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현실정에 있어서 어느 제조업소나 백신을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백신의 질적향상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 문제는, 중앙의 방역당국과 백신의 개발개발 기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과, 각 백신제조업소의 끈질긴 노력과 조화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 양축가 자신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축산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또한 노동임금의 상승이 심한 현대의 양축은 다두사육(多頭飼育)과 밀집사육(密集飼育)을 하지않을 수 없으며, 이와같은 현실은 질병발생의 빈도를 높여주고 있다.

근자에 가축의 질병발생 양상도 매우 다양스러워졌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새로운 질병들이 종축도입의 조류(潮流)를 타고 끈임없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육종기술(育種技術)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우리의 입장에서, 능력이 우수한 종축의 도입을 타할 수는 없다. 다만, 도입을 하더라도 좀 더 질서있고 계

획성있는 도입을 하므로써 외래질병(外來疾病)의 침입을 방제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시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현재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를 대형화시키고 있는 “마력병”이나 “만성호흡기병(慢性呼吸器病)” 등은 그 대표적인 질병들이며, 뿐만아니라 근래의 시험결과를 살펴 보건대 “전염성기관지염”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한 “감보로”병도 국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 양계업계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의 국내양계 전망은, 양계산물의 계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축된 가축방역 기구 시설 인원이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과업을 수행하기에도 힘겨울 지경에 있으니, 장차 다가오는 사태를 여하히 극복해 나갈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한정된 국가예산 범위내에서의 대폭적인 기구의 확장이나, 인원의 보강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점은 타개책 무엇인가?

이제 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산하 또는, 외곽단체들과 양계업계가 서로 합심하여 80년대를 향한 우리의 가끔방역 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민간방역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 기구가 탄생될 때 직접 혜택을 받는자는 다름아닌 양계업계 자신이란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원대한 구상에 빠짐없이 참여의 발길을 재촉하여야 한다. 지난 4월 발족한 축산진흥회(畜産振興會)는 마치 이와같은 시기에 때 맞추어 설립된 감이 든다. 축산진흥회와 양계업계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서 우렁찬 전진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사를 더욱 빛낼 수 있다고 확신 한다.